

# 세계에서 나이 합이 가장 많은 남매



▲ 디크러즈가 12남매의 모습. 사진=페이스북 (Mediacorp GOLD 905)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12남매가 '세계에서 나이의 합이 가장 많은 남매'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

2일 CBS58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디크러즈 남매 12명(남 3명, 여 9명)은 현재 캐나다와 런던, 스위스,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923년생(97세),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1945년생(75세)이다.

세계기네스협회에 따르면 12남매의 나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42년 315일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형제의 나이를 모두 합쳐 '1000세' 가 훌쩍 넘는 기록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서 '나이의 합이 가장 많은 남매' 기록을 거머쥐었다.

12남매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지니아 카터는 "우리 형제들은 일 년에 최소 3번 이상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우리는 매일 오전 11시 단체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기도한다." 고 말했다.

12남매 중 넷째인 91세의 조이스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고 나니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 며 기뻐했다.

한편 이들의 기네스 기록 평가는 지난 3개월 전부터 시작했다. 12남매는 출생증명서와 시민권이 포함된 신분증을 기네스 측에 제출했고, 기록관 리팀이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한 뒤 '합산 연령이 가장 높은 남매' 부분에서 세계기록을 부여했다.

# 여객기 바퀴에 숨어 9000km 비행하고 생존한 남성

비행기 바퀴에 매달린 채 11시간 동안 9,000km를 비행하고도 살아남은 남성이 화제다.

4일 '나우뉴스' 가 영국 리버풀에코 등 현지 언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6월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살던 템바 카베카라는 이름의 30세 남성은 고향 친구 카를리토 발레라와 함께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으로 향하는 영국항공의 보잉 747-400의 비행기의 바퀴 부분에 몰래 올라탔다. 두 사람은 남아공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 새 삶을 찾기 위해 영국으로 밀입국하기로 했다.

카베카와 그의 친구는 비행기가 고공을 비행하는 동안 추락을 피하기 위해 전기 케이블로 팔과 몸을 고정시켰지만 문제는 산소였다. 이륙 직후 카베카는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그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활주로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카베카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6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와 함께 밀입국을 시도했던 고향 친구는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히드로공항에서 불과 9.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그는 427m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 템바 카베카와 그가 영국에 밀입국하기 위해 바퀴에 올라탔던 여객기. 사진=THE Sun' 화면 캡처

극적으로 살아남은 카베카는 망명 허가를 받고 이름을 '저스틴' 으로 개명한 뒤 현재 영국 리버풀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행기 탈항의 생존 가능성은 '0%' 에 가깝다. 대체로 이착륙 시 추락하거나 비행 중 사망하며, 때로는 착륙 시 움직이는 부품이 부딪히거나 끼이면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

# 체포 대신 기프트 카드 선물한 경찰관



▲ 매트 리마 경찰관. 사진=유튜브(WPTV) 캡처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대신 기프트 카드를 선물했다.

지난 2일CN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매사추세츠주 서머셋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매트 리마 경찰관은 한 마트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트 보안요원은 두 여성이 셀프 계산대에서 일부 식품을

스캔하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고 말했다.

당시 여성들은 두 여자아이와 함께 있었다. 리마 경찰관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지 못하도록 이중 한 여성을 마트 밖으로 불러냈다. 식품을 훔친 여성은 두 아이의 엄마로, 직업이 없고 가정 문제도 겪고 있었다. 또 여성이 훔친 식품은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저녁 음식 재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마 경찰관은 "도둑질한 여성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 대신 돈을 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고 털어냈다. 리마 경찰관은 두 여성에게 앞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절도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리마 경찰관은 또 두 여성과 함께 다른 마트에 가서 직접 250달러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이들에게 선물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